

기고

이을신 무안경찰서장



여성 대상 악성범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호모부기(毫毛斧柯)'라는 고사어가 있다. 터럭만 할 때 치지 않으며 도끼를 써야 한다는 말로 화근(禍根)은 키지기 전에 미리 없애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처럼 연인 간 사소한 사람 다툼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데이트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등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범죄는 해마다 약 12.9% 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59,158건이었던 對여성악성범죄는 2017년 94,687건으로 약 1.6배가량 증가하여 올해는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비교적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하여, 국민

들의 불안과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對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각종 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 8월 31일까지는 전국 피서지 78개소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유러, 성범죄 전담팀도 함께 운영한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합동 순찰, 사복 검거반 운영 등 성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이러한 경찰 활동이 상승효과를 얻으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외면공조를 타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사회적 자분을 확충해야 한다. 얼마 전 개그맨 한상규씨가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 여성을 구한 사례가 알려져 우리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도움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예방한 것이다. 이렇듯 여성 대상 악성범죄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社說

사무장병원 단죄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감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 들었다니 기대가 크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서 상시 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담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

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율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등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회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을 활용해서 상시 진담 단속체계를 구축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右通廣內

우 右通廣內

▷ 뜻: 오른쪽에 광내(廣內)가 통(通)하니 광내(廣內)는 나라 비서를 두는 집임.

무더운 여름 일사병과 열사병에 주의하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농촌의 바쁜 농부들과 나들이에 나서는 어린이들이 강한 햇살과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주의해야 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야외에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일을 하는 경우,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라고 부른다. 일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40℃ 사이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등을 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

체온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 이상상태로 심부 체온이 40℃ 이상이고, 일시적인 정신착란과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심각한 무더위는 체내 수분을 앗아가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고 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데,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응급 상황임으로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못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열사병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임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해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어 입안을 면밀히 조사한다. 두 번째로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체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어 준다. 세 번째로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나타나지는지를 관찰하고,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네 번째로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119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시원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가게 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폭염주의보가 발령 시에는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하거나 잠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리고, 수분을 잘 보충해서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이웃에 시는 고령 노인과 독거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무더위를 잘 이겨내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박종표 /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湖南新聞 本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